

유관순 열사 유적의 천안(天案)8경(景) 재선정과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Sustainable Revitalization Plans for Re-selection of the Remains of Yu Gwan-soon as one of the 8 Best Views of Cheonan

장현종* · 이웅규**

Hyun-Jong Jang · Woong-Kyu Lee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천안8경에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을 중심으로 천안8경이 지속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유관순 및 3·1운동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천안8경으로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과 연계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단지 지명도 부족과 관광 여건의 변화에 따른 홍보전략용으로 급조, 지정된 다른 지역의 사례 지정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천안의 관광 문화자원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익히 알려진 ‘유관순 열사’와 독립기념관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이 갖는 지명도 등의 후광효과를 통해 활성화되지 못한 유관순

<http://doi.org/10.56475/ygsr.2023.28.1.213>

논문투고일 : 2023.05.08. 논문심사일 : 2023.05.16. 게재확정일 : 2023.05.30.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부교수(E-mail: hjjang@bu.ac.kr)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ourism of Baekseok University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부교수(E-mail: unikorea@bu.ac.kr)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ourism of Baekseok University

열사 유적과 관련된 천안 2경 관광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유관순 열사 유적 경관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순 열사 유적의 자연문화 경관을 공간적 텍스트화하여 시간적으로 현재화하기 위한 틀 짜기 (framing)와 커 짜기(layering)를 시도하여 첫째, 유관순 열사와 연계된 관련 축제와 추모제 행사 개최로 극대화, 둘째, 유관순 열사 교육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셋째, 유관순 열사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및 VR 축제 개최, 넷째, 유관순 열사 관련 뮤지컬, 전시박람회, 사진전, 음악회 등 개최, 다섯째,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비즈니스로 활성화, 여섯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심도 있는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천안8경 전체와 연계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유관순 열사, 유적, 천안8경,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 목 차 —

- | | |
|--|----------------|
| <p>I. 머리말</p> <p>II. 8경(景)에 관한 고찰</p> <p>III. 유관순 열사 유적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p> | <p>IV. 맺음말</p> |
|--|----------------|

I. 머리말

2019년 용인시는 아름다운 경치 8곳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며 2003년 ‘용인8경’을 선정했다. 후보지가 적어

선정 과정부터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시는 용인8경을 선정해 발표했다. 후보지 추천 및 선정 과정에서 굳이 8경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진입로와 등산로 조망대 등 기반 시설을 갖춰 나가겠다며 용인8경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용인8경 선정 이후에도 논란과 비판은 이어졌다. 관광 상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김종하 · 배현미, 2006). 이처럼 2000년대 초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명소 개발붐이 일어났는데, 용인시도 당시 시류에 편승해 억지로 8경을 선정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황연실, 2018).

용인8경과 마찬가지로 8경 중 대표로 꼽히는 단양8경을 비롯해 부산8경, 수원8경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도 8경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이들 지자체와 차별화하겠다고면서 9경(서산 목포 등), 10경(여수 · 순천 등)을 선정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관광 트렌드와 마케팅 등의 변화로 지금은 일부 지자체(단양, 제천 등)를 제외하고 8경, 9경, 10경에 대한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도 기존 천안12경으로 천안시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선정된 12경의 일부가 천안의 역사성,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과 명칭 역시 문제가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12경을 축소해 8경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김현규, 2014). 천안12경은 천안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이자 명소인 12개소를 지난 2009년 1월 22일에 용역을 줘 지역의 대표성, 자연 경관, 문화적 · 역사적 가치, 발전 가능성, 접근성,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천안12경으로 선정했다(임재문 · 권봉현, 2013). 천안12경은 제1경에 천안 삼거리, 제2경 독립

기념관, 제3경 유관순 열사 사적지, 제4경 아라리오 광장, 제5경 병천순대거리, 제6경 태조산 각원사, 제7경 광덕산 설경, 제8경 천안 종합휴양 관광지, 제9경 왕지봉 배꽃, 제10경 입장 거봉포도마을, 제11경 흥타령 춤축제, 제12경 천호지 야경 등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천안시가 그동안 12경으로 관리해 온 천안의 관광자원을 8경으로 재선정했다. 즉, 천안시는 천안 대표 관광자원 재선정을 위해 실시한 시민과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천안8경’을 2022년 11월 18일 최종 선정했다. 결국, 기존 12경이 천안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내세우고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곳이 있다는 시민여론을 반영해 천안의 대표성, 상징성, 경관 및 문화·역사의 우수성, 보존가치, 대중성 및 활용성 등 항목 평가를 거쳐 8경으로 재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천안8경은 1경 독립기념관, 2경 유관순열사사적지, 3경 천안삼거리공원, 4경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대좌불, 5경 아라리오조각광장, 6경 성성호수 공원, 7경 광덕산, 8경 국보 봉선홍경사갈기비이다.

그중에서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기록한 민족의 성지로, ‘천안은 애국충절의 고장’이라는 자긍심과 시민 정신을 드높이는 관광자원으로 평가받아 1경과 2경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에 ‘천안’=‘독립’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관계가 깊다는 점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역사의 후광효과를 적용한 천안1경과 천안2경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노재현, 2008). 특히 독립기념관에서는 2023년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시작으로 2026년 K-컬처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각종 매체를 통해 천안8경 홍보 및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도 유관순 열사 유적이 천안8경으로 재선정된 것을 계기로 천안시와 공동으로 다양한 MICE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유관순 열사 유적과 주변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천안만의 매력적인 요소를 담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문헌, 신문 기사와 단행본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8경(景)에 관한 고찰

1. 충남 및 천안12경의 고찰

1) 충남지역 명소(名所)의 고찰

현재 충남지역 15개 시·군 가운데 8경, 9경, 10경, 12경이라는 이름으로 경(景) 관광을 도입하여 다양하게 시·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장소의 명소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져 ‘충남관광’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관광자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있으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결해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동안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인 지역별 관광 상품화 노력은 많았지만, 광역적인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박근수, 2007). 이에 경(景)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관광상품 홍보와 유통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충청남도의

관광이 품격있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충남지역 경(景)들이 서로 연계되어 충청남도 통합 관광협력네트워크가 개발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景)이 외국인의 관광 욕구에 맞을지 의문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내의 15개 시·군 지자체 간 연계된 경(景) 관광상품 개발의 주체로서도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경(景) 권역 관광상품’의 개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 관광협력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5개 지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표 1> 충남지역 8경 현황

구 분	시·군 명	경(景) 목록	상세보기	명칭
1	천안시	천안삼거리,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 사적지 , 아라리오 광장, 병천 순대거리, 태조산 각원사, 광덕산 설경, 천안종합 휴양관광지, 왕지봉 배꽃, 입장 거봉포 도마을, 홍타령축제, 천호지 야경.	http://www.cheonan.go.kr/ EgovPageLink.do?link=/to ur/sub/sub02/sub_01	천안12경
2	공주시	갑사, 계룡산, 고마나루, 공산성, 금강, 금학생태공원 마곡사, 무령왕릉, 석장 리유적, 창벽	http://www.traveli.co.kr/re ad/contentsView/180/0/0/1	공주10경
3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바닷길, 성주산 휴양림, 보령호, 오서산, 외연열도, 오 천항, 월전죽도	http://ubtour.go.kr/index.js p	보령8경
4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공세리성당, 온양 민속박물관, 환경과학공원, 세계꽃식 물원, 은행나무길, 신정호수공원, 아산 외암마을, 현충사, 온양온천	https://www.asan.go.kr/tou r/develop/m_tour/?con_sel %5B%5D=3	아산관광 10선
5	서산시	해미읍성,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 상, 간월암, 개심사, 팔봉산, 가야산, 황금산, 서산 한우목장, 삼길포항.	https://www.seosan.go.kr/t our/index.do	서산9경
6	논산시	관촉사, 탐정호, 대둔산, 계백장군유적 지, 쌍계사, 개태사, 옥녀봉, 노성산성	http://tour.nonsan.go.kr/to ur.do?mno=sub01_01_01	논산8경

구 분	시·군 명	경(景) 목록	상세보기	명칭
7	계룡시	계룡산 천황봉, 신도 내 주조석, 솟을 추, 암용추, 향적산 국사봉, 계룡대 통 일탑, 천마산, 사계고택	http://www.gyery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8	계룡8경
8	당진시	왜목일출, 서해대교, 난지섬해수욕장, 제방방조제(제방질주), 솔피성지, 도 비도(도비도해양체험), 함상공원, 아 미산(아미망루),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http://www.dangjin.go.kr/prog/turismCn/tour/sub01_01_01/view.do?cntno=14	당진9경
9	금산군	적벽강 비단물길, 대둔산 낙조대, 진악 산 개삼터, 서대산 산꽃세상, 산림문화 힐링명소, 금산인삼 세계농업유산, 인 삼·약령시장, 칠백의총 금성산, 월영 산 원골, 태조태실 요광은행나무	https://www.geumsan.go.kr/tour/html/sub02/0206.html	금산10경
10	부여군	부소산 낙화암, 정림사지5층석탑, 궁 남지사계, 부여왕릉원, 천정대 백제보, 백마강 수상관광, 백제문화단지, 만수 산 무량사, 서동요 테마파크, 성흥산 사랑나무	https://buyeo.go.kr/html/tour/info/info_010107.html	부여10경
11	서천군	마량리동백나무숲해돋이, 신성리갈 대밭, 한산모시마을, 문헌서원, 춘장대 해수욕장,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 원관, 금강하구둑철새도래지, 장항송 림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유부도와 서천갯벌	http://www.seocheon.go.kr.dj3.ncsfda.org/tour/sub01_01_07.do	서천9경
12	청양군	칠갑산 도립공원, 장곡사, 천장호 출렁 다리, 칠갑산 천문대, 우산성, 칠갑산 장승공원, 지천구곡(계곡), 다락골줄 무덤성지, 고운식물원, 모덕사	https://m.blog.naver.com/bock19578/222131733553	청양10경
13	홍성군	홍주읍성, 남당항, 용봉산, 죽도, 오서 산, 궁리포구, 만해한용운생가지, 백야 김좌진장군생가지, 선상문선생 유허 지, 고암이응노 생가 기념관, 홍주의사 총, 그림같은수목원	https://blog.naver.com/hapytourshare/222047391019	홍성12경
14	예산군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 예 당호, 삼교평야, 가야산, 예산사과, 예 산향새공원, 덕산온천	http://www.yesan.go.kr/tour/sub01_01_01_08_01.do	예산10경
15	태안군	백화산, 안홍성, 안면송림, 만리포, 신 두사구, 가의도, 몽산해변, 할미할아비 바위	http://byuljubu.invil.org/index.html?menu=10813&lnb=40900	태안8경

자료: 저자 제작성.

2) 기존 천안12경(景)의 문제점 분석

기존 천안12경 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김현규, 2014)은 제4경인 아라리오광장이다. 이 광장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조각품 63점과 백화점, 영화관, 갤러리 등이 있다. 아라리오 광장에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는 밀양 아리랑에서 이름을 따와 ‘신나는 갤러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개인소유의 신세계백화점과 영화관, 갤러리가 있고, 천안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아라리오’라는 명칭이다.

또한, 제6경 태조산 각원사는 재일교포인 각연거사(覺然居士) 김영조(金永祚)의 시주로 1977년 5월에 세워졌으며, 천안의 진산이라는 태조산에 자리 잡고 있다. 12경 선정이유인 문화적·역사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12경에 선정된 제7경 광덕산 설경과 제9경 왕지봉 배꽃, 제10경 입장거봉포도, 제12경인 천호지 야경은 명칭에서 광덕산 설경보다는 ‘광덕산’이나 ‘광덕산 4계’로 왕지봉 배꽃은 배꽃만이 아닌 ‘배 밭에서 작업의 모습 등 전체’로, 천호지 야경 역시 ‘천호지’나 ‘천호지 4계’로 포괄적으로 하자는 문제 제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하기에도 접근성과 환경적 저해 요인이 있는데, 광덕산의 경우는 항공촬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제8경인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내에는 리조트 캐릭터인 테딘과 테린을 콘셉트로 워터파크 스토리를 구성해 휴러클리조트가 영업 중이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소를 천안시가 홍보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무인텔(무인영업 모텔)’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12경이라 하기엔 접근성도 문제지만 환경적으로 좋은 경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 천안12경에서 천안8경으로 재선정 과정의 고찰

천안12경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데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명칭에 있어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더불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안12경과 관련한 시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나 의회에서 선정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결국 천안8경 재선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천안8경 주민 및 전문가 선정위원회는 『천안시 대표 관광자원 재선정 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천안8경 선정기준을 자연경관성, 역사성, 지속가능성(방문객 유인력 및 매력성) 3가지 외에 천안지역의 대표성, 문화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재선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천안시 ‘천안8경 용역보고서’에 의거하여 천안8경 재선정에 따른 지역 명칭 논의의 방향을 <표 2>와 같이 경관 수식어, 천안 지명사용 여부, 소재지 명칭 사용 여부 등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기존 천안12경에서의 순위와 천안8경 용역보고서 조사결과에 의한 순위 등을 참고하여 천안8경의 순서를 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표 2> 천안8경 재선정에 따른 지역 명칭 논의 방향

기존 순위	일기칠괴 (一奇七怪)	경관 수식어	천안 지명사용	소재지 명칭 사용
8경	봉선 홍경사	봉선홍경사 대흥리 들길	천안 봉선홍경사	성환읍 대흥리 봉선 홍경사
2경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단풍	천안 독립기념관	목천 독립기념관
1경	천안삼거리공원	천안삼거리공원 능수버들	천안삼거리공원	삼룡동(三龍洞) 천안삼거리공원
	성성호수공원	성성호수공원 야경	천안 성성호수공원	성성동

기존 순위	일기철괴 (一奇七怪)	경관 수식어	천안 지명사용	소재지 명칭 사용
				성성호수공원 또는 업성저수지 성성호수공원
3경	유관순열사유적지	유관순열사유적지 의 독립 햇불	천안 유관순열사유적지	병천 유관순열사유적지
7경	광덕산	광덕산 설경	천안 광덕산	광덕면 광덕산
6경	태조산	천안의 진산 태조산 또는 태조산의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	천안 태조산	안서동 태조산/ 유량동 태조산/ 목천읍 덕전리 태조산
4경	아라리오조각공원 또는 축구종합센터	아라리오조각공원	천안 아라리오조각공원/ 천안축구종합센터	신부동 아라리오조각공원/ 입장면 가산리 축구종합센터

출처: 저자 작성.

그 결과, 1경 독립기념관·2경 유관순열사사적지·3경 천안삼거리
공원·4경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대좌불·5경 아라리오조각광장·6경
성성호수공원·7경 광덕산·8경 국보 봉선홍경사갈기비 등이 2022년
11월 18일 최종 선정되었다.

3. 유관순 열사 유적의 천안8경 재선정의 현대적 의의

유관순 열사 유적의 천안8경 재선정의 현대적 의의는 김종하·
배현미(2006)의 현대팔경(現代八景)의 선정특성에 따른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즉,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로
전국에 8경 선정 붐(boom)이 일면서 그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알릴
수 있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가 선정한 8대
경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첫째, 현재 선정된 8개의 절경이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선정의 배경적 요소는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비전 제언’과 ‘지역 경관의 활용’을 자원으로 하여 ‘지역 명소 개선’과 ‘관광’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분석했다. 셋째, 선정된 8대 절경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웹사이트 및 가이드북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8경 선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8경이 학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박인규(2020), 윤성원 · 황재훈(2014), 임재문 · 권봉헌(2013), 지봉구(2008), Gee(2010) 등의 연구는 8경이 지역사회의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지역 이미지의 대표성을 제고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8경은 지역의 관광명소를 패키지화하여 상호간의 연계 관광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와 지역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첫째, 장소 마케팅 이론 재정립, 둘째, 장소 자산화 실태분석, 셋째, 8경을 통한 해당 지역의 관광경쟁력 방안을 실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실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방정부 8경 선정위원회는 외래 관광객들의 선호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8경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정부는 8경을 통하여 향후 해당 지역관광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미래 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유한 지리적 자원, 관광 자원, 문화자원, 역사 등이 포함된 관광콘텐츠를 갖추어야 하는데, 선정된 8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역의 8경이 해당 지자체의 정체성, 고유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관광경쟁력이 되는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지역 명소 개선의 효과

우리나라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경(景)을 통해 지역 명소를 홍보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 명소 개선이나 홍보를 위해 선호하는 경관 양상은 다음과 같다(김창환, 2014; 소현수, 2020).

첫째, 경(景)으로 선정된 자연환경 요소는 지형 경관인 산, 대(臺), 암, 바위와 같은 산경(山景) 요소와 하천, 해양, 호수(湖沼)경관으로 구분되는 수경(水景)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소나무, 은행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등 노거수, 가로수 길과 숲, 그리고 계절 경관을 제공하는 철쭉, 진달래, 연꽃, 갈대, 억새와 같은 식물요소가 포함된다. 둘째, 인문환경 요소로 선정된 경(景)의 과반수가 묘역, 산성과 읍성, 전통마을, 별서누정, 사찰 등 역사문화유산이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전시관, 테마파크, 해수욕장, 음식 거리 등 여가관광시설과 산책로, 광장, 공원, 식물원 등 녹색기반시설, 마지막으로 목장, 폐탄광, 철도역, 항구, 다리 등의 산업유산이 경(景)으로 선정되었다. 셋째,

현대팔경에는 지역 대표시설, 특산물, 축제처럼 조망과 관련 없는 대상이 포함되기도 한다. 넷째, 경(景)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현대팔경의 과반수가 8개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홍보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9경, 10경, 12경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다섯째, 전래(傳來) 팔경과 현대팔경을 함께 소개하고, 주제를 달리한 두 개의 현대팔경을 만든 경우,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현대팔경을 선정하는 등 여러 개의 현대팔경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 또한, 한 개의 경(景)에 다수의 장소명을 넣은 경우도 많다. 여섯째, 경(景)의 명칭에 ‘낙안(落雁)’을 사용한 소상전형과 ‘효종(曉鐘)’, ‘낙조’, ‘일몰’, ‘야경’, ‘여명’, ‘일출’을 명칭에 넣고 경관과 구름, 노을, 달, 눈을 표현한 소상유사형 현대팔경, 관광 행태를 드러내는 명소체험형 현대팔경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장소의 명칭만으로 인지도를 높인 명승형 현대팔경이다. 일곱째, 현대팔경의 명명 방식은 경물(景物)과 경색(景色)을 명시한 한자를 조합한 소상팔경식 명명 대신 글자 숫자만 네 개로 맞춘 경우, 장소를 특화하는 수식어를 넣은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천안8경도 위의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관광을 통한 천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천안지역 명소의 홍보를 하거나 명소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유관순 열사 유적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

1. 유관순 열사와 연계한 축제와 추모제 행사 개최로 극대화

현재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축제나 추모제는 두 가지로 크게 시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3·1운동 기념 아우내 봉화축제’이다. 이는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 시키고자 매년 2월 말일 개최되는 전국 최대 3·1운동 기념행사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의 거센 횃불이 타올랐던 유관순 열사 사적지와 아우내장터를 중심으로 한 병천면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매년 각종 테마 공연으로 꾸며지는 부대 행사와 식전 행사, 의식 행사인 기념식,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봉화탑 점화 및 횃불시위가 펼쳐진다. 아우내 봉화 축제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감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이는 전국적 문화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표 3> 3·1운동 기념 아우내 봉화축제

▪ 행사 일	: 매년 2월 말일
▪ 장 소	: 사적관리소 광장, 아우내장터 일원
▪ 참 석	: 3,000여 명
▪ 내 용	: 부대 행사, 식전 행사, 본행사
▪ 주 최	: 3.1운동 기념 아우내 봉화 축제 추진위원회
▪ 후 원	: 국가보훈처, 충청남도,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행사개요	: 부대행사 → 순국자 추모제(헌화 및 분향) → 식전 행사 → 기념식(의식 행사) → 봉화탑 점화 → 횃불시위 (사적관리소 광장~아우내 장터, 약 1.3km) → 만세 재연행사 → 폐식 → 불꽃놀이

자료: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홈페이지.

또 다른 하나는 ‘유관순 열사 추모제’이다. <표 4>와 같이 유관순 열사 추모제는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열사의 순국일에 맞춰 사적지내 추모각 앞에서 거행된다. 천안시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관순 열사의 유족 및 내외귀빈과 학생, 시민이 참석하고, 추념사, 추모의 시 낭독, 헌화와 분향으로 진행된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10월 12일 시신을 인수하여 10월 14일 이화학당 주선으로 장례를 행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이태원 공동묘지가 군용기지로 쓰이게 됨에 따라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망실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열사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1989년 10월 12일 초혼묘에 봉안하였다.

<표 4> 유관순 열사 추모제

- 행 사 일 : 매년 순국일 (9월 28일)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유관순 열사 추모각)
- 주 최 : 천안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 행사개요 : 개식 → 내빈소개 및 인사 → 추념사 → 추모사 → 헌화 및 분향 → 유관순 노래 제창 → 추모시 낭독 → 아우내 노래 제창 → 폐식

자료: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홈페이지.

2. 유관순 열사 교육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2022년 12월 건립이 완료된 유관순 열사 사적지 내에 건립되는 교육관은 2023년부터 가족·학교·성인을 대상으로 유관순 열사와 천안의 만세운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강의·답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천안시가 교육관 명칭을 유관순 열사와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을 담으면서 상징성, 적합성, 대중성, 독창성의 4개 항목에 따라 불릴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이에 천안2경으로서의 유관순 열사 유적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진 1>과 <사진 2>의 관련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천안시청 홈페이지.

<사진 1> 유관순 열사 기념관 조감도



자료: 천안시청 홈페이지.

<사진 2> 유관순 열사 사적지 조감도

3. 유관순 열사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및 VR 축제 개최

천안은 다양한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애국과 충절의 도시이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와 독립기념관의

애국 경관이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천안8경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애국 경관들에 관한 역사적 기억들을 되살리고 재현함으로써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향후 재방문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천안의 대표적인 역사 애국 경관인 유관순 열사 유적을 중심으로 호국충절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메타버스 및 VR축제 등을 지속해서 개최하여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이 역사문화 관광지로서의 의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2021년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역사탐방대 ‘이번엔 VR축제다’ <사진 3>을 개최한 것을 참고하여 관련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관순 열사와 석오 이동녕 선생, 태조 왕건 등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과 사건을 다룬 VR을 비롯해 다양한 VR·AR 어트랙션 등을 운영해 관내 9세~19세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4차 산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그중에서 어트랙션은 유관순 열사·석오 이동녕·태조왕건 VR, 천안아 놀자 AR 보드게임, VR로 떠나는 천안여행, 롤러코스터·스포츠·공룡 VR어트랙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태조산청소년수련관(동남구 유량동), 청다움 3호점(서북구 성환읍), 청다움 6호점(서북구 직산읍)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회차당 체험시간은 50분이었다.

이러한 VR과 AR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천안의 역사를 알아가고 미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미까지 더해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처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MZ세대 등에게도 홍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케이에스피뉴스 홈페이지.

<사진 3>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역사탐방대 ‘이번엔 VR축제다’ 포스터

4. 유관순 열사 관련 뮤지컬, 전시박람회, 사진전, 음악회 등 개최

2019년 9월 25일부터 대한민국 대표 춤 축제 ‘천안홍타령춤축제 2019’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그중 축제 2일차인 26일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열린 ‘뮤지컬 콘서트 유관순’<사진 4>가 행사장을 감동으로 물들인 것을 참고하여 유관순 열사 관련 뮤지컬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천안의 대표 축제 ‘천안홍타령춤축제2019’는 천안삼거리공원, 천안예술의전당, 천안 시내 일원에서 2019년 9월 29일까지 춤과 관련된 다채로운 공연과 풍성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중 ‘뮤지컬 콘서트 유관순’<사진 5>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2019년 3월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처음 선보이며 관객들의 극찬을 받아 천안홍타령춤축제 데일리킬러콘텐츠로 관객들을 다시 만났다(최형순, 2019).

뮤지컬 배우 손승연이 유관순 열사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했고, 하세가와 역에는 실력과 뮤지컬 배우 서범석이 출연해 완벽한 분장, 연기, 노래를 훌륭하게 소화하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더불어 천안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천안시립합창단의 합창, 천안시홍타령풍물단의 타악연주, 천안시립무용단의 무용 공연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무대를 펼쳤다.



자료: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사진 4> 뮤지컬 유관순 모습

한편, 유관순 열사 순국 백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푸른하늘’<사진 6>도 2020년 9월 23일과 정동지역 축제인 ‘시월정동’(10월 8일~10일)에 공연되었다. 장소는 각각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과 정동에 있는 공연장이었다.

이 뮤지컬은 극단 사상(4-image)이 제작했다. 서울시와 서울정동 협의체(위원장 황선엽 구세군역사박물관 관장), 정동역사재생지원 센터가 후원하는 ‘2020 서울 정동 역사재생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연을 펼 수 있었다(유재영, 2020).

2020년 9월 28일은 유관순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독립 시키려고 고귀한 생명을 마치게 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유관순 열사가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날이자,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기어이 독립을 이루어낸 작은 씨앗이 된 날이다.

이미 잘 알려진 유관순 열사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추모하는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이 천안2경으로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을 홍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수많은 선열의 고귀한 뜻을 대표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어서 가장 화젯거리인 문화 장르 중 뮤지컬의 모습으로 유관순 열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홍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관순 열사 유적의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웨슬리안타임즈(<http://www.kmcdaily.com>).

<사진 5> 유관순 열사 뮤지컬 포스터

이외에도 천안에서 개최되었던 [한뼘미술관 삼거리갤러리]의 <항거, 100년의 봄>展 <표 5>, <사진 6>처럼 유관순 열사 관련 전시회 등을 유관순열사 유적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한뼘미술관 삼거리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전시는 (사)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의 <항거, 100년의 봄>展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한 추모 시화전이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를 감상하면서 유관순 열사 유적을 방문하는 등 연계상품을 만들어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미이다.

<표 5> 유관순 열사 추모 시화전

- 전 시 명 : 항거, 100년의 봄展
- 전시기간 : 2020. 10. 20.(화) ~ 10. 24.(토) / 월,일,공휴일 휴관
- 전시장소 : 한뼘미술관 삼거리갤러리 (차량등록사업소 3층)
- 참여단체 : (사)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

자료: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진 6> 유관순 열사 추모 시화전 모습

또한, 유관순 열사 사적지의 유관순열사기념관 등에서 2017년 9월 9일부터 10월 28일(토요일, 5회 공연)까지 개최된 <작은 음악회> 등을 참고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6> 참고, <사진 7> 참고).

천안시 사적관리과가 병천 유관순열사기념관과 목천 석오이동녕 기념관에서 무료로 개최한 ‘야외 작은 음악회’는 천안시향 현악 5중주가 “사랑의 슬픔”(클라이슬러), “G선상의 아리아”(바흐),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유관순 열사 유적 내에서 관련 음악회 등을 상시로 개최하여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랑 정신과 연계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을 접근 전략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표 6> 유관순 열사 관련 작은 음악회 일정

날짜	시간	장소
9. 9(토)	11:00~11:30 (30분)	유관순열사기념관
9.23(토)		
10.14(토)		
10.21(토)	14:00~14:30 (30분)	석오이동녕기념관
10.28(토)		유관순열사기념관

자료: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자료: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사진 7> 유관순 열사 추모 작은 음악회 모습

5.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비즈니스로 활성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제작지원을 받은 여성 청년CEO 아트뮤플랫폼이 유관순 열사 캐릭터 ‘만세소녀’를 개발했다고 2018년 7월 17일 공개했다(<사진 8> 참고). 만세소녀는 충남 역사인물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을 형상화한 디자인 작품으로 ‘호랑이의 심장을 가진 소녀를 기억합니다’라는 콘셉트로 호랑이 캐릭터인 동반자 ‘산군이’와 함께 제작됐다(송요기, 2018).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사진 8>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을 형상화한 ‘만세소녀’와 호랑이 캐릭터인 동반자 ‘산군이’

아트뮤플랫폼은 2018년 7월 18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콘텐츠마켓 ‘캐릭터라이선싱페어’에 참가해 만세소녀와 산군이의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과 일반 관람객 대상의 판매촉진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천안2경인 유관순 열사 유적과 연계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유관순 열사 캐릭터 개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유관순 열사와 관계된 창작콘텐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배우며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유관순 열사 유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천안지역의 여성과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MZ세대의 한복 대여 등을 벤치마킹 하여 유관순 열사 의상과 고무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전시회를 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상품 개발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캐릭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사진 9> 참고). 이는 유관순 열사를 상품화한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으나 잊혀가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등을 MZ세대 등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파티해 홈페이지.

<사진 9> 유관순 열사 의상과 고무신

더불어 유관순 열사와 광복군 등의 복장을 한 전 세계 코스튬 플레이어(costume player)가 천안의 축제 등을 방문해서 축제 기간 내내

현장 곳곳에서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관순 열사 등 색다른 코스프레가 눈길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역대 한국 만화에 나왔던 유관순 열사 주인공 코스프레를 주제로 한 <최고의 코스튬 플레이어> 시상식과 유관순 열사 관련 <전국학생만화와 웹툰 공모전, 대한민국창작만화와 웹툰 공모전>, <틴툰 (Teen-Toon)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안의 대표적인 ‘뽕뽕데이’ 축제에서의 ‘뽕지순례’와 연계하여 유관순 열사 비즈니스캐릭터를 개발하여 MZ세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도 있다.

6.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와 연계하는 방안

백석대 본부동에 자리한 유관순연구소가 그동안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펼쳐진 3.1운동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 계승 학술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자료: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홈페이지.

참고 (사진 좌) 유관순학회 이동언 추진위원장(좌)이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우)에게 회장 위촉장을 전달하는 모습 / (사진 우) 유관순학회 창립총회 기념사진.

<사진 10> 유관순학회 창립총회 및 유관순 탄신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히, ‘유관순연구’ 학술지 연2회 발간, 학술회의 개최, 독립운동사 특강,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식 역사교육인 ‘유관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천안2경으로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 중심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학술대회와 유관순 학교를 지속해서 개최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유관순연구소 편집위원회가 논문집 ‘유관순연구’를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을 준비 중인 가운데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위해 추진해온 유관순학회 설립으로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을 계기로 연계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유관순 및 3·1운동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우선 천안8경으로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과 연계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천안8경에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을 중심으로 천안8경이 지속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단지 지명도 부족과 관광 여건의 변화에 따른 홍보전략용으로 급조 지정된 다른 지역의 사례 지정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천안의 관광 문화자원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익히 알려진 ‘유관순 열사’와 독립기념관 천안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지명도 등의 후광효과를 통해 활성화되지 못한 유관순 열사 유적과 관련된 천안2경 관광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유관순 열사 유적 경관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천안8경 중 2경이라는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문화경관 텍스트와 <유관순 열사>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 콘텐츠의 조응적 관계성 모색을 통한 장소와 인물, 그리고 역사적 현장 경관의 동일성을 통한 의미와 이야기 전달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순 열사 유적의 자연문화경관을 공간적 텍스트화하여 시간적으로 현재화하기 위한 틀 짜기(framing)와 켜 짜기(layering)를 시도하여 첫째, 유관순 열사와 연계된 관련 축제와 추모제 행사 개최로 극대화, 둘째, 유관순 열사 교육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셋째, 유관순 열사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및 VR 축제 개최, 넷째, 유관순 열사 관련 뮤지컬, 전시박람회, 사진전, 음악회 등 개최, 다섯째,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비즈니스로 활성화, 여섯째,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스토리뿐만 아니라 텔링이 텍스트 향유의 지배적 요소가 되도록 하고, 관련 에피소드 등의 이야기거리를 탐색하여 경관 주제의 모티브로 발굴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스토리텔링 방식을 다양화시키는 방안으로 텍스트의 구조 안에서 재맥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몰입 경관 요소를 장소, 대상 그리고 시점으로 구분하여 현장화해야 한다. 특히,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경관 몰입요소를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요소 등으로 세분화하여 미시적인 관련 콘텐츠를 제시함으로써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천안2경의 이야기성, 현장 장소성 그리고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천안8경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서 제안된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활성화 방안이 실제 천안

관광의 대안이자 전략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천안8경 연출의 리얼리티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점의 설정과 경관 루트 연계방안 그리고 문화유산해설 시나리오가 갖추어져야 하며, 천안의 자연 및 풍수적 관점에서의 형국 인식과 유관순 열사 관련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경관 해설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인터넷과 디지털 상용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심도 있는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천안8경 전체와 연계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Jee, B. G.(2010), 『한국의 관광콘텐츠: 8경에 대하여』, 한국콘텐츠학회, 『Review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8(4).
- 김중하 · 배현미(2006), 『현대팔경(現代八景)의 선정특성에 따른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계획 학회지』, 41(2).
- 김창환(2014), 『지역 8경을 이용한 지역성 분석-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3).
- 김하영(2021), 『천안시,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역사탐방대, ‘이번엔 VR축제다’』, 『케이에스피뉴스』.
- 김현규(2014), 『[금강의 제언] 2% 부족한 ‘천안12경’ 수정 불가피』, 『금강일보』.
- 노재현(2008), 『단종애사(端宗哀史)의 후광효과를 적용한 영월팔경의 스토리텔링 전략』,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36(3).
- 박근수(2007), 『충남 관광자원 특성별 관광상품 제공방안』, 충남연구원, 『열린충남』, 38.
- 박영순(2011),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 국토연구원, 『국토』, 362.
- 박인규(2020), 『지역 관광자원의 장소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김천 8경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0(4).
-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홈페이지, <https://community.bu.ac.kr/yugwansun/index.do>.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

-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http://sogang.ac.kr/front/boardview.do>.
- 소현수(2020), 「지자체가 선정한 현대팔경에 나타난 경관 선호 양상」,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1).
- 송민정·손일(2011), 「현대 팔경에 대한 경관분석-경상남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문화역사지리』, 23(2).
- 송요기(2018),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유관순 열사 모티브한 ‘만세소녀’ 출시」, 『로컬(LOCAL)세계』.
- 용인시민신문 홈페이지, <https://www.yongin21.co.kr>.
- 웨슬리안타임즈 홈페이지, <https://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
- 유재영(2020),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추모, 뮤지컬 ‘푸른하늘’ 공연」, 『웨슬리안타임즈』.
- 윤성원·황재훈(2014), 「지역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보도블록디자인에 관한 연구-진천 ‘상산팔경(常山八景)’을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5(1).
- 임재문·권봉현(2013), 「천안(天案) 12경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27(4).
- 전재홍·하헌수·김건휘(2016), 「관광 스토리텔링, 장소성 인식, 관광객 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주 8경을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28(1).
- 정은혜(2021), 「역사문화관광지로서 천안의 역사경관에 대한 잠재력 고찰: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55(3).
- 지봉구(2008), 「동양의 관광콘텐츠: 팔경과 구곡에 대하여」,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89-399.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cfac.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84&page=6.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yugwansun/sub04_01.do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prog/turismCn/tour/sub01_03_03/view.do?pageIndex=5&cntno=12.

최형순(2019), 「천안홍타령춤축제2019 ‘뮤지컬 콘서트 유관순’ 성료」, 『충청뉴스』.

충청뉴스 홈페이지, <http://www.ccnnews.co.kr>.

케이에스피뉴스 홈페이지, <https://www.kspnews.com/789980>.

파티해 홈페이지, <https://m.partyhae.com-product-category-display/유관순열사의상>.

황연실(2018), 「번지수 없어 찾기도 힘든 용인8경…바뀐 관광 추세탓?」, 『용인시민신문』.

A Study on Sustainable Revitalization Plans for Re-selection of the Remains of Yu Gwan-soon as one of the 8 Best Views of Cheonan

Hyun-Jong Jang^{*} · Woong-Kyu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the Cheonan 8 Scenes so that they can continue, focusing on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oon, which was re-selected as one of the 8 Scenes of Cheonan. Considering this aspect, a plan to activate public awareness of Yu Gwan-soon an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as proposed.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uch more efficient to link it with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oon, which was re-selected as one of the eight scenic spots in Cheona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most of Cheonan's tourism and cultural resources are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ccordingly, through the halo effect, such as the well-known martyr Yu Gwan-sun and the popularity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Independence Hall of Cheonan, we tried to promote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un, who were not active.

In particular,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were reviewed to present a sustainable revitalization plan. As a result, first, we tried to maximize it by holding related festivals and memorial even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Second, the operation of various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Yu Gwan-soon Martyr Education Center was proposed. Third, it was proposed to hold a metabus and VR festival with martyr Gwansun Yu. Fourth, it was proposed to hold musicals, exhibitions, photo exhibitions, and

^{*}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ourism of Baekseok University(E-mail: hjjang@bu.ac.kr)

^{**}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ourism of Baekseok University(E-mail: unikorea@bu.ac.kr)

concer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Fifth, it was proposed to vitalize the character business with the martyr Yu Gwan-soon as a motif. Sixth, a plan to connect with the academic conference hosted by the Yu Gwan-soon Research Institute at Baekseok University was deduced.

Desp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uture research will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and an in-depth analysis of content for the revitalization plan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Keyword: Martyr Yu Gwan-soon, Remains, Cheonan 8 Views,
Revitalization Plan,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